

시설보호아동의 역할모델에 따른 학교적응 및 미래관의 차이*

School Adjustment and Future Time Perspectives of Children in Institutional Care According to Their Role Models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부
석사 신미영
부교수 강현아

Division of Child Welfare and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 Mi-Young Shin

Associate Professor : Hyun-Ah Kang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이론적 배경 | V. 논의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References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school adjustment and future time perspectiv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in regards to the role models of the children in institutional facilities. Data for this study were obtained from a survey conducted on 310 children aged 11-13. Data were analyzed using various statistical methods such as frequency analysis, chi-square test, *t*-test, one-way ANOVA, and one-way ANCOVA.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overall, the majority of children selected entertainers and celebrities as their role models. Also, we found differences i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their background variables (gender, staying with their siblings, and having parents alive). Second, having role models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levels of school adjustment as well as the positive future time perspectives of the children. Based on the results, practical implications for children in institutional care were discussed.

주제어(Key Words) : 시설보호아동(children in institutional care), 역할모델(role model), 학교적응(school adjustment), 미래관(future time perspective)

Corresponding Author : Mi Young Shin, Department of Child Welfare and Studi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Cheongpa-ro 47-gil 100, Yongsan-gu, Seoul, 140-742, Korea Tel: +82-2-954-9006 Fax: +82-2-710-9209 E-mail: jilsm7569@sm.ac.kr

* 본 논문은 2011년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용 수정 보완함.

* 본 논문은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 역량강화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330-B00206).

I. 서론

보건복지부 통계자료(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에 의하면, 요보호아동 중 시설보호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해마다 40~50%로 나타나 시설보호가 가정외보호서비스에서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설보호아동은 부모와의 분리경험 외에도 물리적, 정서적, 사회적 환경이 결핍되어 보다 많은 심리적인 상처 및 우울, 불안, 내재된 분노, 비행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고(Hong, 2010),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정서지능 및 사교성, 대인적응성, 주도성과 같은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여(Park & Moon, 2009)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Yi, Lee, & Sung, 2001). 특히 학교는 아동 발달에 있어 매우 중요한 환경이자 이후 사회생활 적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므로 고위험 상황에 있는 시설보호아동의 학교적응 수준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중요한 발달성과 지표이다.

또한, 시설보호아동은 시설생활로 인한 위축감과 사회적 편견으로 성인이 된 이후 참여하게 될 사회생활에 대하여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만 18세에 이르면 생활하던 시설에서 퇴소하여 독립해야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기대보다는 두려움과 부담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고, 미래에 닥칠 역경이나 어려운 일을 더 쉽게 직면하지만(Snyder & Lopez, 2005), 미래에 대한 태도가 비판적이면 문제행동을 더 쉽게 경험하도록 만들기 때문에(Yoo & Yoo, 2007) 시설보호아동이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요보호아동이나 혹은 빈곤 아동처럼 여러 위험요인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아동들 중에서도 여러 보호요인을 통해 학교에 잘 적응하는 아동들을 발견할 수 있다. 빈곤아동의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Park, 1998)에서 학교의 교과과정 외 활동, 민주적 학교분위기, 교사의 지지, 역할모델과 같은 보호요인이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인 중 특히 역할모델은 시설보호아동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설보호아동들은 친부모와의 애착적이고 지지적 관계가 부족하므로 다른 주위 성인의 긍정적 역할모델의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생각된다.

역할모델은 특정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Nauta & Kokaly, 2001), 혹은 삶의 일부 영역에서 모방하고 싶은 가치를 지닌 사람(Pleiss & Feldhusen, 1995)을 의미한다. 긍정적인 역할모델은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의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어 부정적인 심리사회적 문제와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Aspy et al., 2004), 학업성취와 자아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urd, Zimmerman, & Xue, 2009; Yancey, Siegel, & McDaniel, 2002).

역할모델은 취약한 아동의 학업성취 및 학업 열망에 영향을 미치고(Zirkel, 2002), 심리적 문제와 학업적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어(Bryant & Zimmerman, 2003),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시설보호아동의 학교적응과 긍정적인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역할모델은 미래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은 존재로, 성공한 역할모델을 관찰하면 역할모델처럼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즉 자아효능감이 증진되어 이전에 시도해보지 않았던 과제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Hackett & Betz, 1981), 역할모델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미래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모델은 시설보호아동의 미래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설보호아동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Jeong, 2002; Kang & Lee, 2000; Sung, 2006; Yi et al., 2001)은 시설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영향이나 친가족 관계경험으로 인한 심리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이나 행동문제 등은 보고하였지만,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역할모델의 긍정적 영향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보호아동에게 역할모델의 영향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역할모델의 존재유무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과 미래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시설보호아동은 보통 시설보육사나 시설의 다른 아동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친가족과의 접촉이나 애착이 적은 편이다. 또한 입소 전 친가정에서 부모 불화, 가정폭력, 학대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했거나(Jeong, 2002), 부모가 사망했거나 가출해서 생존여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Kang, Shin, & Park, 2009) 친가족 및 친부모가 아동에게 긍정적 역할모델로 작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가족이 역할모델로서 시설보호아동에게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함과 동시에 부모의 생존여부 및 형제와 시설동거여부에 따라서 아동의 발달성과가 달라지는지도 살펴보았다.

정리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시설보호아동에게 역할모델이 있는지, 역할모델이 있다면 그 대상을 왜 역할모델로 선택했는지와 역할모델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할모델의 존재유무 및 대상에 따라 시설보호아동의 학교적응 및 미래관에 차이가 있는지 탐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보호아동의 배경변인(성별, 학년, 입소기간, 동거형제 유무, 부모생존 여부)에 따라 역할모델 대상, 학교적응 및 미래관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역할모델의 존재유무 및 대상에 따라 학교적응 및 미래관에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역할모델과 시설보호아동

역할모델은 모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식되어지는 사람(Pleiss & Feldhusen, 1995)으로서 어떤 한 사람을 표본으로 정하여 성숙할 때까지 모델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 학습이론가들은 아동이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그들의 행동, 사고, 감정을 습득한다고 믿기 때문에 관찰학습이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Bandura(1977)는 이러한 관찰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역할 모델이라고 명명했는데, 개인의 관심사와 관련된 사람을 역할 모델로 선택하기 때문에 역할모델의 대상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 될 수도 있고, 현존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다. 또한 개인이 선택한 역할모델은 개인과 성별, 나이, 인종 등과 같은 배경적 특징을 공유하는 경향이 있는데(Bandura, 1986), 이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역할모델의 경험이 자신의 삶에도 역시 적용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듯 Haas와 Sullivan(1991)의 연구에서는 다른 민족적 배경을 가진 역할모델들 보다 동일 민족의 역할모델이 자아효능감 증진과 직업에 대한 성 고정관념을 감소시키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Zirkel(2002)의 종단연구에서도 인종과 성별이 일치하는 역할모델이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학업성취와 목표달성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역할모델의 긍정적 영향력은 사회적 편견의 위협을 받는 여성이나 소수민족과 같은 취약 계층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Hackett & Byars, 1996).

아동발달에 대한 역할모델의 보호요인으로서의 효과는 다른 여러 영역에서도 보고되었다. 예를 들어, 역할모델의 존재는 폭력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의 영향을 줄인다거나(Bryant & Zimmerman, 2003), 아동의 내현화·외현화 행동문제를 줄이고, 학업성취를 높일 수 있다(Hurd et al., 2009). 또한 힘든 역경을 극복한 역할모델은 많은 위협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의 적응유연성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Werner, 1995). 특히 긍정적인 역할모델이 이론 성공적인 결과는 아동에게 장애 다른 일들에 대한 성공까지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갖도록 북돋아주며 성공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동기부여를 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Lockwood & Kunda, 1999). 이와함께 역할모델은 아동의 진로포부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Ahn, 2008).

그러나 한편으로는 역할모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빈곤과 실업률이 높은 지역 또는 범죄와 무질서가 만연한 지역에서 생활하는 아동은 부정적인 행동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Anderson, 1990),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는 이웃과 함께 생활하는 아동은

이러한 성인을 가장 힘이 있고 명망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폭력적인 행동 또는 일탈 행동을 모방할 확률이 높다(Bandura, 1971). 부정적인 역할모델의 반사회적인 행동은 아동에게 공격적인 태도와 폭력적인 행동을 모방하게 하여 취약 계층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Hurd, Zimmerman, & Reischl, 2011), 시설보호아동과 같이 제한된 환경에서 생활하는 아동이 어떤 대상을 역할모델로 삼고 있는지, 그 영향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아동은 역할모델의 대상으로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즉 부모나 다른 가족을 모델로 삼는 경향이 있다(Bryant & Zimmerman, 2003; Rhodes, 1994). 이는 가까이에 있고, 자주 볼 수 있는 역할모델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Bryant & Zimmerman, 2003). 몇몇 연구결과(Bromnick & Swallow, 1999; Park, 2009)에서 아동의 역할모델의 대상으로 연예인이나 유명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학령기 아동에게 부모는 아동의 행동을 강화하는 영향력 있는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Ryu, Lee, & Kim, 2007) 아동의 정체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Hendry, Roberts, Glendinning, & Coleman, 1992), 아동에게는 부모 또는 가족과 같이 가까이에 있는 대상의 영향이 더 클 수 있다(Lutter & Jaffee, 1996).

선행연구들은 다양한 역할모델 중에서도 부모의 부재가 학령기 아동의 성역할발달 뿐만 아니라 아동의 성격발달 및 정서적인 문제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 연구(Hetherington, 1966)에서는 아버지가 없는 학령기 남자아동이 비교집단 일반 아동에 비해 덜 남성적인 성역할 행동을 보이고, 또래에게 더 의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Santrock, 1970)는 2세 이전에 아버지 부재를 겪은 남자아동들이 비교집단에 비해 신뢰감과 성실성이 떨어지며, 열등감이 더 많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연구(Jeong, 2006)도 어머니가 없는 아동은 감정 표현 경험을 가질 기회가 박탈되어 가족원을 비롯한 타인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하여 가장 중요한 역할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모의 부재가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대표적인 역할모델인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시설보호아동의 역할모델에 대한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2. 역할모델과 아동의 학교적응

시설보호아동처럼 가족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집단의 아동들에게는 학교에서의 경험이 더욱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아동은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와 아동간의 대인관계 만족도도 낮아(Park & Moon, 2009), 가장 중요한 환경이 될 수 있는 학교에서의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학교생활의 부적응은 이후의 사회적응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학교에서의 교육적 성과는 성인기 노동시장 참여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보호아동의 학령기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자아탄력성, 자아개념, 내적통제성향 등이 있고, 환경적 변인으로는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사회적지지, 학교의 민주적 분위기 등이 있다(Kwon, Yoo, & Min, 2002; Park, 1998; Shin & Doh, 2000; Song, Kim, & Hwang, 2011; Sung, Yi, & Lee, 2001).

이러한 요인들 중에서도 아동의 학교적응과 관련하여 자주 등장하는 요인은 사회적지지이다. 아동의 주요 사회적 지지원은 가족, 또래, 교사이다. 많은 연구들(Kim, 1998; Kim, 1995; Song et al., 2011)이 가족, 또래, 교사의 지지와 아동의 학교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문제는 가족, 또래, 교사라는 이들 세 가지 사회적 지지원의 통합적 고려가 가정이라는 환경 속에서 가족의 사회적지지를 경험할 수 있는 아동들에게는 가능하지만, 가족과 단절되어 생활하는 시설보호아동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Kwon 외(2002)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시설보호아동에게 가장 의미있는 타인은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는 보육사로 보고 보육사의 사회적지지와 학교적응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그 결과 보육사의 사회적지지가 시설보호아동의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육사는 이직률이 높고, 모든 보육사가 아동을 충분히 지지해 줄 수 없으며, 동질 집단에 생활하는 아동들임에도 보육사에 대한 지각의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Kwon et al., 2002) 시설보호아동의 중요한 사회적 지지자를 보육사로 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요한 지지원으로 보육사에 한정하기보다 넓은 범위의 대상까지 포함하는 역할모델이라는 의미있는 타인의 영향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역할모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역할모델이 아동의 적응유연성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Werner, 1995) 학업성취 및 학업적 열망(Zirkel, 2002)과 심리사회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고(Hurd et al., 2009), 그리고 학업의 어려움 등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Bryant & Zimmerman, 2003). 또한 힘든 과정 속에서 성공을 이룬 역할모델의 존재는 사회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의 영향을 완화시키며(Lockwood & Kunda,

1999), 긍정적인 역할모델은 개인의 표상이 되어 긍정적인 자아이미지 형성과 자아효능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Yancey et al., 2002).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볼 때, 긍정적인 역할모델의 존재는 시설보호아동의 학교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역할모델과 아동의 미래관

미래는 하나의 관념 속에 존재하는 시간이며 기대하는 바의 상태로서 그 자체가 사실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미래는 낙관적일 수도 있고, 비관적일 수도 있다(Cornish, 1977). Lamm, Schmidt과 Trommsdorff(1976)는 미래관을 미래에 대한 개인의 낙관적 또는 비관적 태도, 미래에 대한 기대, 소망, 두려움과 관련된 것으로써 한 개인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느끼는 지각과 감정의 총체적 견해로 정의하였으며, Nurmi(1991)는 미래에 대한 개별적인 생각과 태도로 정의하였다.

시설보호아동은 정상적인 가정의 보호 안에 있지 못하다는 상대적 박탈감과 일반가정의 아동보다 심리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인적, 물질 자원이 부족한 환경에서 성장하므로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를 보이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Yoo, Min, & Kwon, 2001). 이와 더불어 시설보호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퇴소하여야 하는 현실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더 클 수 있다. 성인기로의 전환이 일반가정의 아동은 가족의 지원 아래 몇 년에 걸쳐 준비기간을 통해 일어나지만 시설보호아동은 짧은 기간 안에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한된 경험적 정보에 의존하여 자립을 추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퇴소 후 생활에 대하여 기대보다는 불안과 걱정이 더 클 수 있다(Sin, Kim, & An, 2003).

미래관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미래관이 아동의 발달성이나 현재의 사회심리적 적응과 관련 있음을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청소년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미래를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위험행동에 덜 참여하게 된다(Auslander, Slomin-Nevo, Elze, & Sherraden, 1998; Cabrera, Auslander, & Polgar, 2009; Robbins & Bryan, 2004). 그리고 이러한 미래에 대한 태도는 현재의 감정, 동기,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Kazakina, 1999; Snyder & Lopez, 2005; Zaleski, Cycon, & Kurc, 2001). 반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아동은 심한 우울을 느끼고, 낮은 자아개념 또는 자아효능감을 가지게 될 수 있다(Snyder, 1994). 따라서 미래의 삶에 대하여 기대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미래를 낙관적이고 희망적으로 바라보기에 여러 제약이 많은 시설보호아동의 미래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역할모델은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부여하고

(Hackett & Byars, 1996), 역할모델을 통해 자신이 미래에 참여하게 될 일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어 자신의 미래에 관심을 갖도록 한다(Zirkel, 2002).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한 역할모델은 역할모델과 동일한 성공의 기대를 가지게 하고 사회의 고정관념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Taylor, Lord, McIntyre, & Paulson, 2011) 시설보호라는 낙인감으로 이후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시설보호아동의 미래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좋은 역할모델은 학대, 방임의 경험이 있는 아동, 부모의 상실로 인해 기가 꺾여 있는 아동,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는 아동 등 외부의 물리력에 의해 희망을 잃어버린 아동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Snyder, 1994), 여러 환경적 어려움을 안고 있는 시설보호아동에게 긍정적인 역할모델이 있다면 역할모델을 통해 희망을 가지게 되므로 아동의 미래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수도권 소재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아동들이다. 표본추출단위는 수도권 아동양육시설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먼저 시설을 임의 표집한 다음, 표집된 시설을 접촉하여 연구 협조를 구하였다. 시설의 협조 동의가 이루어지면, 표집된 시설의 모든 초등 4-6학년 아동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아동의 동의를 구하였다. 임의표집된 시설(서울시 19개 시설과 인천시 9개 시설) 중 서울 소재 대규모 시설 1곳과 인천 소재 시설 3곳이 조사를 허락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10부가 회수되었다. 회수된 310부의 설문지 가운데 무성의하거나 무응답이 많은 설문지는 제외하고 총 296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1) 역할모델

아동의 역할모델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Brichen과 Thornton(2007)이 10-11세, 14-16세 아동을 대상으로 사용한 질문지와 Park(2009)이 사용한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시설보호아동에게 “나는 저 사람을 닮고 싶다” 혹은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등의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지, 없다면 아래 문항에 응답하지 않아도 되나, 만약 있다면 그들이 선택한 역할모델의 성별은 무엇이며, 그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을 역할모델

로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역할모델의 대상은 제시된 보기(부모, 친형제,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는 형(오빠)이나 누나(언니), 학교친구, 학교교사, 보육사, 연예인, 유명인, 이외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 중에서 선택 또는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역할모델 선정 이유에 대해서는 개방형 질문으로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구성하였다. 역할모델의 특성에 관한 문항은 역할모델 유무에 상관없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제시된 보기 중 중복선택 가능하도록 하였다.

2) 학교적응

시설보호아동의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Park(1998)이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 유연성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 척도는 Park(1998)의 연구에서 .80 이상의 높은 신뢰도를 보였고, 본 연구 대상 아동과 비교적 유사한 특성을 가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빈곤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선택되었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80으로 나타났다.

이 척도는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 7문항,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 5문항, 학교규범 준수 10문항으로 총 22문항이며, 측정방식은 4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채점 방식은 단순누가식으로 총합을 구했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력이 높은 것을 의미하는데, 부정적 진술문항은 역점으로 환산하여 채점하였다.

3) 미래관

아동의 미래관의 긍정성 혹은 비관성을 측정하기 위해 Fischer와 Leitenberg(1986)가 사용한 검사지를 Suh(1988)가 수정·보완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초등학교 아동들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비관적인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지로, 낙관적인 문항 17개, 비관적인 문항 13개로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각 문항에 대해 ‘그렇다(1)/아니다(0)’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낙관주의 점수가 더 높을수록 미래에 대해 더 낙관적인 것을 의미하고, 비관주의 점수가 높을수록 더 비관적인 것을 의미한다. Suh(198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낙관성 부분 .80, 비관성 부분 .77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낙관성 부분, 비관성 부분 모두 .83을 나타내었다.

3. 자료분석

연구대상자들의 배경적 특성과 역할모델의 성별, 선정이유, 그리고 역할모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카이검정을 실시하였다. 역할모델 대상선정에 대한 응답비율의 집단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카이검정을 실시하였고, 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과 미래관의 차이

Table 1.
The presence of role models

Variable	having a role model		not having a role model		overall		
	number	%	number	%	number	%	
gender	male	93	57.4	69	42.6	162	54.7
	female	91	67.9	43	32.1	134	45.3
overall		184	62.2	112	37.8	296	100

Table 2.
The genders of role models according to the genders of children

Variable	gender of a role model				overall		
	male		female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child's gender***	male	87	93.5	6	6.5	93	100
	female	13	14.3	78	85.7	91	100
overall		100	54.3	84	45.7	184	100

*** $p < .001$.

를 알아보기 위하여 t -test와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시설보호아동의 역할모델 존재유무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과 동거형태유무, 부모생존여부를 공변인으로 효과를 제거하고 one-way ANCOVA를 실시하였다. 역할모델 존재유무에 따른 미래관의 차이는 t -test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역할모델 대상에 따른 학교적응 및 미래관의 차이는 one-way ANOVA를 통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집단 간 차이 분석을 위해 Tukey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아동의 역할모델에 대한 기술분석

역할모델이 있는 아동은 전체 296명 중 184명(62.2%)으로 과반수 이상의 아동이 자신이 닮고 싶은 모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참조). 역할모델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의 비율은 남자아동(57.4%)보다 여자아동(67.9%)이 높게 나타났다.

역할모델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 184명을 대상으로 피험자의 성별과 그들의 역할모델의 성별 일치여부를 살펴본 결과(Table 2 참조), 대상아동 중 남자는 87명(93.5%)이 여자는 78명(85.7%)이 동성의 역할모델을 지니고 있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아동이 동성의 역할모델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성 역할모델에 대해서는 여자아동(14.3%)이 남자아동(6.5%)보다 높게 나타나, 여자아동이 남자아동보다 이성의 모델을 더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116.47^{***}$).

역할모델을 선택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하여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는데, 응답내용은 역할모델의 특성을 참고하여

Table 3.
The reasons for choosing such a role model (N = 184)

	role model because	frequency	%
1	want to be	43	23.4
2	cool or good looking	36	19.6
3	good at sports	19	10.3
4	kind	13	7.1
5	good personality	13	7.1
6	good singer or dancer	10	5.4
7	intimate	9	4.9
8	respectful	8	4.3
9	likable	8	4.3
10	famous	7	3.8
11	altruistic	4	2.2
12	good teacher	3	1.6
13	etc(e.g.making much money)	5	2.7
14	non-response	6	3.3

범주화한 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역할모델처럼 되고 싶어서(23.4%)' 라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멋있어서 또는 예뻐서(19.6%)', '운동을 잘 해서(10.3%)', '친절하게 잘 대해 주어서(7.1%)', '착하고 성실해서(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조).

다음으로 역할모델 유무에 상관없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역할모델에게 가장 중요한 특성이 무엇인지 응답하도록 하였다(Table 4 참조). 역할모델에 대한 특성은 여러개 체크(중복응답)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동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할모델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다' (62.2%)는 특성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운동을 잘한다' (54.7%), '정직하다' (47%), '용감하고 강인하다' (43.9%)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에

Table 4.
The characteristics of a role model (multiple responses)

	characteristics	frequency	%
1.	successful in his/her career	184	62.2
2.	good at sports	162	54.7
3.	honest	139	47.0
4.	brave and strong	130	43.9
5.	respectful	127	42.9
6.	nice looking	125	42.2
7.	famous	121	40.9
8.	altruistic	118	39.9
9.	rich	111	37.5
10.	good singer	110	37.2
11.	good actor	107	36.1
12.	diligent	104	35.1
13.	shows emotions	100	33.8
14.	pleasant	99	33.4
15.	peaceful	94	31.8
16.	hilarious	94	31.8
17.	artistic	77	26.0
18.	good teacher	74	25.0
19.	well-educated	72	24.3
20.	good fighter	57	19.3

비해 ‘씨움을 잘한다’ (19.3%), ‘교육수준이 높다’ (24.3%), ‘공부를 잘 가르쳐 준다’ (25%)와 같은 특성의 응답률은 낮게 나타났다.

2. 시설보호아동의 배경변인과 역할모델 대상

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라 역할모델 대상 선정의 비율 차이를 분석한 결과(Table 5 참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연예인과 유명인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아동(66.0%)은 여자아동(34.0%)에 비해 운동선수, 대통령과 같은 유명인을, 여자아동(60.0%)은 남자아동(40.0%)에 비해 학교교사나 친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7.36$). 5학년은 유명인(48.0%)을, 6학년은 연예인(52.7%)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8.38$). 입소기간이 7년이상인 아동(70%)은 입소기간이 7년미만인 아동(30%)보다 역할모델로 학교교사 및 학교친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2.96$). 이외에도 보육사(13.4%), 원가족(2.7%), 시설내 연장자(1.6%), 후원자(1.1%) 등을 자신의 역할모델로 지목하였는데 이러한 대상은 선택빈도가 낮게 나타나, ‘기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기타’ 역할모델 대상 중에는 여자아동은 보육사를 주로 선택한 데 비해, 남자아동은 원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 시설내연장자 등 보다 다양한 대상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입소기간이 짧을수록, 시설내 동거형제가 있는 아동

일수록 원가족을 역할모델로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시설보호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학교적응 및 미래관의 차이

1) 시설보호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
성별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한 결과(Table 6 참조), 학교적응의 하위영역 중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 = 2.307, p < .05$). 학년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학년에 따른 학교적응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4학년의 학교적응은 68.98($SD = 7.44$), 5학년은 67.69($SD = 8.89$), 6학년은 66.91($SD = 8.61$)로 나타나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적응 수준은 낮아졌다.

동거형제유무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시설 내 동거형제가 있는 아동의 학교규범준수 평균은 32.80($SD = 3.89$), 동거형제가 없는 아동의 평균은 31.57($SD = 4.47$)로 나타났다($t = 2.019, p < .05$).

부모생존여부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학교생활흥미($t = 2.037, p < .05$)와 학교규범준수($t = 2.103, p < .05$), 그리고 총 학교적응($t = 2.398, p < .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부모가 생존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부모가 사망했거나 부모의 생존여부를 모른다고 응답한 아동보다 학교생활흥미와 학교규범준수, 총 학교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2) 시설보호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미래관의 차이

시설보호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른 미래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Table 7 참조), 배경변인에 따른 미래관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자아동보다 남자아동이, 7년 이상인 아동보다 입소기간이 3년 이하인 아동이, 동거형제가 없는 아동보다 동거형제가 있는 아동이 학교적응과 낙관적 미래관은 높으나 비관적 미래관은 낮게 나타났다.

4. 역할모델 존재유무 및 대상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 및 미래관의 차이

1) 역할모델 존재유무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 및 미래관의 차이

아동의 성별, 동거형제유무, 부모생존여부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역할모델의 유무에 따른 학교적응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성별, 동거형제 유무, 부모생존 여부를 공변인으로 효과를 제거하고 일원공변량분석(one way ANCOVA)을 실시하였다(Table 8 참조). 그 결과,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F = 6.49, p < .05$)와 총 학교적응($F = 5.61,$

Table 5.
The objects of role models according to children's general characteristics

children's characteristics	role model	entertainer		celebrity		teacher or friends		etc		overall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frequency (%)		
gender	male	27	(49.1)	33	(66.0)	16	(40.0)	17	(43.6)	93	(50.5)
	female	28	(50.9)	17	(34.0)	24	(60.0)	22	(56.4)	91	(49.5)
grade	4th	10	(18.2)	10	(20.0)	9	(22.5)	10	(25.6)	39	(21.2)
	5th	16	(29.1)	24	(48.0)	11	(27.5)	16	(41.0)	67	(36.4)
	6th	29	(52.7)	16	(32.0)	20	(50.0)	13	(33.3)	78	(42.4)
duration in care	shorter than 7 years	25	(45.5)	23	(46.0)	12	(30.0)	16	(41.0)	76	(41.3)
	longer than 7 years	30	(54.5)	27	(54.0)	28	(70.0)	23	(59.0)	108	(58.7)
staying with siblings	yes	14	(25.5)	10	(20.0)	5	(12.5)	10	(25.6)	39	(21.2)
	no	41	(74.5)	40	(80.0)	35	(87.5)	29	(74.4)	145	(78.8)
parents alive	yes	10	(18.2)	12	(24.0)	3	(7.5)	7	(17.9)	32	(17.4)
	no/don't know	45	(81.8)	38	(76.0)	37	(92.5)	32	(82.1)	152	(82.6)
전체		55	(100.0)	50	(100.0)	40	(100.0)	39	(100.0)	184	(100.0)

Note. In order to meet the statistical underlying assumptions of the chi-square test, smaller cells (care worker, family, sponsor and so on) were enclosed in the other.

* $p < .05$.

Table 6.
The level of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children's general characteristics

child	categories	school adjustment								
		<i>n</i>	interest in school		academic attitude		following school rules		overall	
			<i>M</i>	(<i>SD</i>)	<i>M</i>	(<i>SD</i>)	<i>M</i>	(<i>SD</i>)	<i>M</i>	(<i>SD</i>)
gender	male	162	22.29	(3.64)	14.14	(2.66)	31.96	(4.48)	68.40	(8.48)
	female	134	21.56	(3.92)	13.42	(2.72)	31.69	(4.24)	66.66	(8.38)
	<i>t</i>		1.658		2.307*		0.541		1.757	
grade	4th	66	22.14	(3.08)	14.26	(2.78)	32.59	(3.83)	68.98	(7.44)
	5th	91	21.89	(4.15)	13.87	(2.51)	31.93	(4.80)	67.69	(8.89)
	6th	139	21.92	(3.85)	13.57	(2.79)	31.42	(4.29)	66.91	(8.61)
	<i>F</i>		0.094		1.481		1.652		1.358	
duration in care(years)	less than 3	31	22.19	(3.26)	14.23	(2.72)	31.87	(4.34)	68.29	(7.71)
	4-6	89	22.15	(3.74)	13.89	(2.46)	32.03	(4.16)	68.07	(7.76)
	over 7	176	21.82	(3.90)	13.70	(2.83)	31.73	(4.50)	67.26	(8.94)
	<i>F</i>		0.279		0.534		0.140		0.378	
with siblings	yes	65	21.82	(4.06)	14.28	(2.53)	32.80	(3.89)	68.89	(8.03)
	no	231	22.00	(3.71)	13.68	(2.75)	31.57	(4.47)	67.25	(8.57)
	<i>t</i>		-0.347		1.563		2.019*		1.383	
parents alive	yes	58	22.86	(3.81)	14.21	(2.55)	32.91	(3.81)	69.98	(8.00)
	no/don't know	238	21.74	(3.75)	13.72	(2.74)	31.58	(4.47)	67.03	(8.49)
	<i>t</i>		2.037*		1.233		2.103*		2.398*	
overall		296	21.96	(3.78)	13.81	(2.71)	31.84	(4.37)	67.61	(8.46)

* $p < .05$.

$p < .05$ 에서 역할모델이 있는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역할모델의 존재유무에 따른 아동의 미래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t*-검정을 실시한 결과(Table 9 참조), 비관적

미래관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낙관적 미래관에는 역할모델이 있는 집단이($M = 14.73, SD = 2.85$) 없는 집단($M = 13.96, SD = 3.56$)보다 높게 나타났다($t = 2.056, p < .05$).

Table 7.
The future time perspectives according to children's general characteristics

children	category	n	optimistic perspective		pessimistic perspective	
			M	(SD)	M	(SD)
gender	male	162	14.58	(3.17)	2.01	(2.67)
	female	134	14.26	(3.14)	2.16	(2.70)
	<i>t</i>		0.866		-0.485	
grade	4th	66	13.97	(3.23)	2.06	(2.67)
	5th	91	14.77	(2.61)	1.98	(2.57)
	6th	139	14.44	(3.42)	2.16	(2.77)
	<i>F</i>		1.231		0.126	
duration in care(years)	less than 3	31	14.39	(3.41)	1.68	(2.45)
	4-6	89	14.93	(2.58)	2.08	(2.89)
	more than 7	176	14.19	(3.35)	2.15	(2.62)
	<i>F</i>		1.635		0.414	
with siblings	yes	65	14.83	(3.13)	1.97	(2.79)
	no	231	14.32	(3.16)	2.11	(2.65)
	<i>t</i>		1.143		-0.380	
parents alive	yes	58	14.97	(2.87)	1.86	(2.33)
	no/don't know	238	14.31	(3.21)	2.13	(2.76)
	<i>t</i>		1.429		-0.694	
overall		296	14.44	(3.15)	2.08	(2.68)

**p* < .05.

Table 8.
The results of ANCOVA: the level of school adjustment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role models

school adjustment	variable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s	<i>F</i>	
interest in school	gender	46.716	1	46.72	3.36	
	covariance	with siblings	22.242	1	22.24	1.60
		parents alive	90.078	1	90.08	6.48
		group	52.098	1	52.10	3.75
	error	4045.027	291	13.90		
	overall	4221.514	295			
	academic attitude	gender	41.833	1	41.83	5.90
covariance		with siblings	8.353	1	8.35	1.18
		parents alive	4.728	1	4.73	0.67
		group	46.001	1	46.00	6.49*
error		2061.726	291	7.08		
overall		2162.780	295			
following rules		gender	3.971	1	3.97	0.21
	covariance	with siblings	38.294	1	38.29	2.03
		parents alive	40.911	1	40.91	2.17
		group	32.572	1	32.57	1.73
	error	5487.549	291	18.86		
	overall	5636.216	295			
	overall	gender	233.952	1	233.95	3.38
covariance		with siblings	19.029	1	19.03	0.27
		parents alive	326.215	1	326.22	4.71
		group	388.384	1	388.38	5.61*
error		20139.063	291	69.21		
overall		21138.321	295			

**p* < .05.

Table 9.
The future time perspectives according to having a role model

category	having a role model n = 184	not having a role model n = 112	overall n = 296	t
	M(SD)	M(SD)	M(SD)	
optimistic perspective	14.73(2.85)	13.96(3.56)	14.44(3.15)	2.056*
pessimistic perspective	1.96(2.58)	2.28(2.83)	2.08(2.68)	-0.980

*p < .05.

2) 역할모델 대상에 따른 아동의 학교적응 및 미래관의 차이

다음은 역할모델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을 대상으로 역할모델의 대상에 따라 아동의 학교적응 및 미래관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앞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아동의 배경변인(성별, 동거형제유무, 부모생존여부)에 따라 학교적응에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에, 역할모델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의 경우에도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역할모델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의 학교적응은 배경변인 중 성별에 따른 차이만 나타나, 이 분석은 남자아동과 여자아동을 구분하여 실시하였다(Table 10 참조). 분석결과, 남자아동에게서만 학교적응의 하위영역 중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에서 역할모델의 대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F = 3.506, p < .05$). 집단 간 차이를 탐색하기 위해

Tukey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원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 아동 주위의 대상을 역할모델로 지목한 집단이 연예인 등을 지목한 다른 집단들에 비해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에서 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원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과 같은 대상을 역할모델로 지목한 남학생이 다른 대상을 역할모델로 지목한 남학생보다 학업성적과 학업태도가 좋은 편이며, 학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함을 의미한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라 역할모델의 대상, 학교적응 및 미래관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역할모델의 존재유무 및 대상에 따른 학교적응 및 미래관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첫째, 역할모델이 있다고 응답한 아동 대부분이 자신의 역할모델이 동성이라고 응답하여 아동은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이 반영된 모델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역할모델을 선택함에 있어 남자아동은 우월성, 강함, 공격적인, 용감함과 같은 남성성이 강한 가치에 근거하여 선택하고, 여자아동은 외모와 긍정적인 사회적 행동과 같은 여성성이 높은 가치에 근거하여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는 Biskup과 Pfister(1999)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역할모델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자신의 일을 성공적으로 해낸다’, ‘운동을 잘한다’, ‘외모가 빼어나다’ 등의 응답률은 높았다. 이에 비해 ‘공부를 잘 가르쳐 준다’와 ‘교육수준이

Table 10.
School adjustment and future time perspectives according to the object of role models

category		entertainer ^(a)	celebrity ^(b)	teacher or friends ^(c)	significant others ^(d)	overall	F
		(n = 55)	(n = 50)	(n = 40)	(n = 39)	(n = 184)	
		M(SD)	M(SD)	M(SD)	M(SD)	M(SD)	
interest in school	M	22.19(3.52)	22.09(4.50)	22.00(3.83)	24.06(3.40)	22.46(3.94)	1.153
	F	22.07(4.21)	21.41(3.69)	21.96(3.10)	22.36(3.80)	21.99(3.70)	0.213
academic attitude	M	14.15(2.18)	14.21(2.37)	14.00(2.53)	16.18(2.38)	14.52(2.44)	3.506* ^{(a),(b),(c)<(d)}
	F	13.36(3.07)	14.35(2.74)	13.50(2.52)	13.59(3.29)	13.64(2.90)	0.442
following rules	M	32.67(4.68)	30.90(5.15)	31.94(3.34)	33.88(5.13)	32.14(4.80)	1.622
	F	31.50(4.27)	32.24(4.52)	31.75(4.16)	32.64(3.89)	31.98(4.16)	0.346
overall	M	69.00(8.30)	67.21(9.70)	67.94(6.49)	74.12(8.99)	69.12(8.90)	2.503
	F	66.93(9.13)	68.00(8.78)	67.21(7.23)	68.59(8.69)	67.60(8.37)	0.188
optimistic perspective	M	14.63(2.50)	15.42(2.60)	15.56(1.86)	14.18(4.26)	14.99(2.85)	1.079
	F	14.68(2.91)	13.82(2.86)	14.00(3.24)	15.18(2.17)	14.46(2.84)	1.026
pessimistic perspective	M	1.93(2.80)	1.85(2.51)	1.63(1.89)	1.82(2.65)	1.83(2.50)	0.048
	F	2.07(2.46)	2.00(2.60)	3.13(3.48)	1.09(1.51)	2.10(2.68)	2.317

*p < .05.

높다' 등은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외연구(Bricheno & Thornton, 2007)에서 '정직하다', '다른 사람을 잘 도와준다', '교육수준이 높다' 등의 역할모델 특성의 응답률은 높게, '운동을 잘한다', '유명하다', '노래를 잘한다' 등의 응답률은 낮게 나타난 것과 비교되는 결과이다. 이는 본 연구 대상 아동 중 다수의 아동이 연예인과 유명한 운동선수와 같은 유명인을 역할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운동이나 외모, 성공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교육수준 등과 관계된 특성에는 관심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시설보호아동들은 전반적으로 연예인과 유명인을 역할모델로 가장 많이 지목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저소득계층은 주변에서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 역할모델을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힌 연구결과(Yancey et al., 2002)와도 유사하다. 이는 시설보호아동이 다양한 대상과의 접촉과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남자아동은 유명인과 연예인 이외에 역할모델 대상으로 원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 등과 같은 기타인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 내 여자 보육사가 많은 현실에서 특히 시설남자아동에게 적절한 역할모델이 부족함을 시사한다. Mason, Cauce, Gonzales와 Hiraga(1994)의 연구에서 남성 역할모델의 부재는 청소년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시설보호아동 중 특히 남자아동에게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아동의 배경변인에 따라 학교적응 및 미래관에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 학교적응에서 아동의 성별, 동거형태유무, 부모생존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남자아동의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가 여자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아동의 학교적응에 성별에 따라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Park, 1998)와 다르게 나타나, 학교적응의 성차가 시설보호라는 환경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인지 후속연구에서 일반아동과 함께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거형태유무에 따라서는 동거형태가 있는 아동이 없는 아동에 비해 학교규범준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 떨어져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형제와 함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서적인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고, 형제간의 상호의존도가 높아 공격적 행동을 더 적게 보인다는 결과(Yi et al., 2001)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사회적 지지원이 결여된 시설보호아동에게 동거형태의 존재가 중요한 지지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생존여부에 따라서는 부모가 생존해 있다고 응답한 아동이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생존여부를 모른다고 응답한 아동보다 학교생활흥미와 학교규범준수, 총 학교적응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친부모의 생존이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학교부적응을 낮춘다는 연구결과(Hur, 2003)와 일치한다. 하지만 이는 부모가 생존해 있는 아동과 부모가 생존하지 않은 아동의 외면화 행동문제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결과(Yi et al., 2001)와 부모의 존재유무에 따라 자아존중감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결과(Hong, 2010)와 차이가 있어, 친부모의 존재여부와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부모생존여부만이 아니라 부모와의 접촉방법, 횟수 등 부모의 사회적 지지도 함께 고려하여 후속연구에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시설보호아동의 역할모델 존재유무에 따라 학교적응 및 미래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교적응과 낙관적 미래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역할모델이 있는 아동은 역할모델이 없는 아동에 비하여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와 총 학교적응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역할모델이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는 아동의 적응유연성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Park, 1998; Werner, 1995)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제한된 시설생활로 인해 책임감,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기술, 부모와의 유대관계, 사회적 지지와 같은 개인 및 환경적 보호요인이 부족한 시설보호아동에게 역할모델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여 학교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미래관에서도 차이를 보여, 역할모델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낙관적 미래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긍정적인 역할모델을 통해 아동 자신도 역할모델처럼 해낼 수 있다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선행연구(Lockwood & Kunda, 1999)의 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다. 비관적 미래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 역할모델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비관성 수치가 낮게 나타났다.

역할모델의 대상에 따라서는 아동의 학교적응에 차이를 보였다. 학교적응의 경우 남자아동과 여자아동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남자아동에게서만 역할모델 대상에 따라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 점수 차가 드러났다. 즉, 주위 대상을 역할모델로 선택한 아동집단이 타집단들에 비해 학업성적에 대한 태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보육사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시설보호아동의 학교적응력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Kwon et al., 2002)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는 연예인이나 유명인과 같이 멀리 있는 대상보다 가까이 있는 대상의 영향력이 크고 중요함을 시사하기 때문

에 부모와의 애착이 부족한 시설보호아동이 친근하고 지지적인 주변 성인을 긍정적인 역할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설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의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 시설보호아동의 발달을 지지해주기 위해 긍정적인 역할 모델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프로그램에 역할모델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접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소외계층 초·중·고 학생(Mentee)들과 대학생(Mentor)을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멘토로서 멘티 학생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기초학습 및 교과지도, 특기·적성 지도, 진로 및 학교생활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멘토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여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긍정적 역할모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멘토이자 역할모델로서의 의무감을 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설보호아동이 원가족, 후원자, 자원봉사자와 같은 주위 성인을 역할모델로 삼을 때 더 긍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친부모와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만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후원자의 경우도 경제적 후원 관계만이 아니라 아동의 정서적 지원자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후원자와의 결연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와 일반화를 위해서는 확률표집이 적합하나 전국의 시설보호아동을 표집하는데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의 시설을 임의표집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역할모델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에도 타당화된 도구가 존재하지 않아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질문지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후속연구에서는 역할모델의 존재유무나 대상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 뿐만 아니라 역할모델의 영향력까지 보다 면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시설보호아동의 역할모델 및 미래관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시설보호아동의 역할모델의 존재유무 및 대상의 선정 경향과 미래관 수준을 살펴보고, 역할모델에 따라 학교적응 및 미래관에 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References

- Ahn, J-A. (2008). The Study of the Relationship of Role Model, Attitudes toward Multiple Role Planning and Career Aspiration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Anderson, E. (1990). *Streetwise: Race, class, and change in an urban communit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spy, C. B., Oman, R. F., Vesely, S. K., McLeroy, K., Rodine, S., & Marshall, L. (2004). Adolescent violence: The protective effects of youth asset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2*, 268-276.
- Auslander, W., Slomin-Nevo, V., Elze, D., & Sherraden, M. (1998). HIV prevention for youths in independent living programs. *Expanding life options, Childwelfare, 77*(2), 208-221.
- Bandura, A. (1971). *Social learning theory*. New York: General Learning Press.
- Bandura, A. (1977). *Social cognitive theory*. Princeton, NJ: Van Nostrand.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iskup, C., & Pfister, G. (1999). I would like to be like her/him: are athletes role-models for boys and girls?. *European Physical Education Review, 5*(3), 199-218.
- Bricheno, P., & Thornton, M. (2007). Role model, hero or champion? Children's views concerning role models. *Educational Research, 49*(4), 383-396.
- Bromnick, R. D., & Swallow, B. L. (1999). 'I Like Being Who I Am: A Study of Young People's Ideals'. *Educational Studies, 25*, 117-28.
- Bryant, A. L., & Zimmerman, M. A. (2003). Role models and psychosocial outcomes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 36-67.
- Cabrera, P., Auslander, W., & Polgar, M. (2009). Future Orientation of Adolescents in Foster Care: Relationship to Trauma, Mental Health, and

- HIV Risk Behaviors. *Journal of Child & Adolescent Trauma*, 2(4), 271-286.
- Cornish, E. (1977). *The Study of the Future*. Washington: World Future Society.
- Haas, N., & Sullivan, H. (1991). Use of ethnically matched role models in career materials for Hispanic students.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16, 272-278.
- Hackett, G., & Betz, N. E. (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ackett, G., & Byars, A. M. (1996). Social cognitive theory and the career development of African American women.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 322-340.
- Hendry, L. B., Roberts, W., Glendinning, A., & Coleman, J. C. (1992). Adolescents' perceptions of significant individuals in their lives. *Journal of Adolescence*, 15, 255-270.
- Hetherington, E. M. (1966). Effects of paternal absence on sex-typed behaviors in Negro and white preadolescent ma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87-91.
- Hong, Y-M. (2010). The Relationship among the Institutionalized children's perceived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the Korea Youth Reserch Association*, 17(12), 187-209.
- Hur, S-H. (2003).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psychological settings and school maladjustment of children in a foster care fac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Hurd, N. M., Zimmerman, M. A., & Reischl, T. M. (2011). Role Model Behavior and Youth Violence: A Study of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31(2), 323-354.
- Hurd, N. M., Zimmerman, M. A., & Xue, Y. (2009). Negative adult influences and the protective effects of role models: A study with urba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 777-789.
- Jeong, S-H. (2006). Family Structure, Parent-Child Interactions and Adolescent Delinquency: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Single Mother Family and Single Father Family.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for Social Welfare Studies*, 30, 185-213.
- Jeong, S-W. (2002). The Influence of Original Family Relationship on Psychosocial Adaptation of Adolescent in Institutional Ca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4, 145-168.
- Kang, B-J., & Lee, C-D. (2000). A study on the necessity of the family life education for orphanage adolescence: Special reference to healthy family perspectives. *Journal of the Korea Association of Family Relations*, 5(2), 153-182.
- Kang, H-A., Shin, H-R., & Park, E-M. (2009). The Comparisons of the Status of Independence and Social Adjustment of Youths Who Aged Out from Child Residential Ca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0, 41-69.
- Kazakina, E. (1999). Time perspective of Older Adults: Relationships to Attachment Style, Psychological Well-Be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New York, USA.
- Kim, J-H. (1998).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system on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S. (1995). The 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maladjustment of childr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won, K-N., Yoo, A-J., & Min, H-Y. (2002). The Relationship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Care Teacher, Internal Locus of Control, and School Adjustment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0(5), 109-118.
- Lamm, H., Schmidt, R. W., & Trommsdorff, G. (1976). Sex and social class as determinants of future orientation in adolesc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4, 317-326.
- Lockwood, P., & Kunda, Z. (1999). Salience of best selves undermines inspiration by outstanding role mod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 Psychology*, 76, 214-228.
- Lutter, J. M., & Jaffee, L. (1996). *The bodywise woman*. Champaign, Ill: Human Kinetics.
- Mason, C. A., Cauce, A. M., Gonzales, N., & Hiraga, Y. (1994). Adolescent problem behavior: The effect of peers and the moderating role of father absence and the mother-child relationship.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6), 723-743.
- 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1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year book 2010*. Seoul: Author.
- Nauta, M. M., & Kokaly, M. L. (2001). Assessing role model influence on students' academic and vocational decision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9, 81-99.
- Nurmi, J. E. (1991). How do adolescents see their future? A review of the development of future orientation and planning. *Developmental Review*, 11, 1-59.
- Park, H-S. (1998). *The school resilience of Korean adolescents in pover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M-K., & Moon, H-J. (2009). Emotional Intelligence, Social Competence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Among Institutionalized and Home Reared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2), 1-13.
- Park, S-M. (2009). *The influence of adolescents' role models on their self-esteem and behavior proble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Korea.
- Pleiss, M. K., & Feldhusen, J. F. (1995). Mentors, role models, and heroes in the lives of gifted children. *Educational Psychologist*, 30, 159-169.
- Rhodes, J. E. (1994). Older and wiser: Mentoring relationship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Th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14(3), 187-196.
- Robbins, R, N., & Bryan, A. (2004). Relationships between future orientation, impulsive sensation seeking, and risk behavior among adjudicated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9(4), 428-445.
- Ryu, H-S., Lee, J-S., & Kim, J-A. (2007). *Family relations and welfare*. Seoul: Dongmunsa.
- Santrock, J. W. (1970). Influence of onset and type of paternal absence on the first four Eriksonian developmental crises. *Developmental Psychology*, 3, 273-274.
- Shin, N-N., & Doh, H-S. (2000). Interaction effects of Parent-child Relationship and School Adjustment on adolescent self-concept.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8(3), 99-113.
- Sin, H-L., Kim, S-G., & An, H-Y. (2003). A Study on Influential Factors on Independent Living of the Discharged from the Child Residential Car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16, 167-193.
- Snyder, C. R. (1994). *The psychology of hope*. New York: Free Press.
- Snyder, C. R., & Lopez, S. J. (2005). The Future of Positive Psychology: A Declaration of Independence. In C. R. Snyder & S. J. Lopez (Eds.),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pp. 751-768).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Song, Y-K., Kim, Y-H., & Hwang, S-S. (2011). Effects from the Interaction of Ego-Resilience, Social Supports in the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20(1), 1-19.
- Suh, Y-S. (1988). Future Time Perspective of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Journal*, 29, 73-91.
- Sung, M-Y. (2006). Children's emotionality and behavior problems depending on their institutionalization.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15(1), 17-29.
- Sung, M-Y., Yi, S-H., & Lee, K-Y. (2001). A Comparison of Early School Adjustment Between Institutionalized and Home-Reared Children.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1), 53-64.
- Taylor, C. A., Lord, C. G., McIntyre, R. B., & Paulson, R. M. (2011). The Hillary Clinton effect: When the same role model inspires or fails to inspire improved performance under stereotype threat.

-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4(4), 447-459.
- Werner, E. E. (1995). Resilience in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4, 81-85.
- Yancey, A. K., Siegel, J. M., & McDaniel, K. L. (2002). Role models, ethnic identity, and health-risk behaviors in urban adolescents.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56, 55-61.
- Yi, S-H., Lee, K-Y., & Sung, M-Y. (2001). Institutionalize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depending on Their Family Network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4), 79-89.
- Yoo, A-J., Min, H-Y., & Kwon, K-N. (2001). Ego-identity and Psycho-social Adjustments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and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9(3), 135-149.
- Yoo, J-S., & Yoo, G-S. (2007). A Study on the Effects of Future Orientation on Self-Esteem, Self-Control, Scholastic Performance, and Sexual Permissiveness among Korean Adolescents. *Journal of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5(4), 1-16.
- Zaleski, Z., Cycon, A., & Kurc, A. (2001). Future Time Perspective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dolescent Samples. In P. Schmuck & K. M. Sheldon (Eds.), *Life goals and well-being: Towards a positive psychology of human striving* (pp. 58-67). Goettingen, Germany: Hogrefe & Huber Publishers.
- Zirkel, S. (2002). Is there a place for me? Role models and academic identity among White students and students of color. *Teachers College Record*, 104(2), 357-376.

접 수 일 : 2012년 3월 22일

심사시작일 : 2012년 3월 26일

게재확정일 : 2012년 5월 2일